

2023. 2. 8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

친환경건물과장	최종하	2133-3590
환경마일리지팀장	곽호진	2133-3601
담 당 자	소향순	2133-3605
관련 누리집 (메뉴)	<a href="http://ecomileage.seoul.go.kr">http://ecomileage.seoul.go.kr</a>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: 7쪽

### 서울시 에코·승용차마일리지 개편...지급기준 완화, 신규 마일리지 도입

- 하반기부터 일정 기준 이하로 에너지 절감 유지하면 '지속(유지)마일리지' 지급
- 내년부터 지급구간 5단계로 세분화,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주기 연 2회로 늘려
- 친환경 운전 습관에 마일리지 추가 지급하는 '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' 신규 도입
- 마일리지 합산사용 및 서울사랑상품권 등의 혜택 다양화·미사용·소멸예정 최소화

서울시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혜택을 지급하는 에코·승용차 마일리지의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.

○ 지난 12월에 에코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한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입 가구는 총 1,243,411가구로, 서울시 전체 가구의 1/4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,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또한 전체 회원의 1/4에 달하는 실정이다.

○ 과거 에너지 사용량(주행거리)과 비교한 현재 절감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그간의 지급 방식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 매년 지속적인 절감이 어려워 1~2년 이후에는 더 이상 마일리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.

- 이번 제도 개편은 올겨울 급격한 에너지 비용 및 물가 상승으로 가중되는 생활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,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.
- 주요 내용은 에코·승용차 지속(유지) 마일리지 신설,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완화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주기 단축,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 신규 도입 등이다. 제도 개편은 23~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.
  -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환경마일리지 전면 개선대책(안)」을 '22년 12월 마련하고, 올해 실행 계획으로 「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'23년 환경마일리지 운영계획」을 지난 1월 수립했다.
- 먼저,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에너지 절감을 지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'지속(유지) 마일리지'를 에코·승용차마일리지에 모두 도입한다.
  - 그간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만 지급하던 혜택(인센티브)을 일정 기준 이하 유지만 해도 지급할 예정이다. 시는 이를 통해 1억 5천여 만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내년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지급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승용차마일리지의 지급주기를 연 1회(1년 주기) 지급을 연 2회(6개월 주기)로 단축한다.
- 과속·급제동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'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'를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해 에너

지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 습관 실천으로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.

- 환경부/자동차환경협회 ‘스마트운전평가시스템’ 과 연계를 통한 주행중 과속·급제동 및 스마트 운전평가 데이터를 축적, 친환경 운전 종합지수를 토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며,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- 현대기아차와 자동주행거리 기록 연계 협력을 통해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없이 승용차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행거리 수기 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고, 사진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등록 사진 이미지분석(OCR) 시스템(SW)을 도입하여 계기판 사진에서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추출해 그간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업무의 부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※ OCR(Optical Character Recognition, 광학 문자 인식) :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여 텍스트로 추출, 판독

- 에코마일리지의 회원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비교 자동화를 통해 자치구, 동 직원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, 보다 빠른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.

- 한편, 시는 미사용 마일리지와 소멸 예정 마일리지(5년)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잔여 마일리지 사용 안내를 강화하고, 통합에코마일리지 사용 및 제공 혜택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.

-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각각 운영되던 누리집을 하나로 통합(ecomileage.seoul.go.kr)하고, 에코,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에코마일리지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사랑

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.

- 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, 매년 지속적인 절감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회원가입과 실질적인 절감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 
-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지난 13년간 많은 시민들이 에코·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”며 “더욱 참여하기 쉽고,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친환경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**[에코,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기준 주요 개편안]**

- 지속(유지)마일리지 전격 도입(일정기준 이하 유지 시에도 지급) : 23년
  - (에 코) 직전 2년 평균 대비 5% 이상 절감 시에만 지급
    - (변경) 2회 연속 절감시 5% 미만 절감도 마일리지 지급(1만 마일리지)
  - (승용차) 전년 대비 0% 이상 절감 시에만 지급
    - (변경)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이하 운행 시에도 마일리지 지급
  - ※ 매년 지속하여 절감하여야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피로감 해소
- 지급구간 세분화(단축) 및 지급기준 완화 : 24년
  - (에코) 지급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, 마일리지 수령 문턱 완화
  - (승용) 연 1회 평가(12월 1회) → 연 2회 평가(6월 1회)

**[ 연도별 추진 일정 ]**

분야	2022년	2023년	2024년
에코 제도개편		지속(유지) 마일리지	지급구간 세분화 및 지급기준 완화
승용차 제도개편		지속(유지) 마일리지	지급주기 단축
마일리지	마일리지 통합		
보상품	보상품 서비스 일원화	서울사랑상품권 확대	
홈페이지	홈페이지 통합 오픈(22.12.)		
행동실천		녹색실천운전 마일리지	

※ 통합에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에코/승용차 마일리지 혜택받기  
 (<http://ecomileage.seoul.go.kr>)



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환경 마일리지를 체험해보세요.

**마일리지 참여방법 안내**

자세히보기 >

**마일리지 사용하기**

자세히보기 >

**에너지 등록/변경**

자세히보기 >

**차량 등록/추가**

자세히보기 >

알림판

< 1 / 5 > ||

공지사항

+



통합에코마일리지(에코, 승용차 마일리지) 보상품(북엔라이프 모바일/지류... <span style="color: yellow;">New</span>	2023-02-02
상품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<span style="color: yellow;">New</span>	2023-01-18
통합에코 마일리지 한번에 이해하기! [카드뉴스] <span style="color: yellow;">New</span>	2023-01-17
'22.12월~'23.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더 받는 절약 승관 [카... <span style="color: yellow;">New</span>	2023-01-17
승용차마일리지 지급일정안내 <span style="color: yellow;">New</span>	2023-01-17
(23.1.11)통합에코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<span style="color: yellow;">New</span>	2023-01-11
통합에코 홈페이지 오류기능 처리 안내 <span style="color: yellow;">New</span>	2022-12-29



<에코와 승용차 마일리지의 홈페이지를 2022년 12월부터 통합에코 홈페이지로 통합>

- 기존 에코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하던 회원가입을 통합 회원으로 운영하고, 각각 적립하던 마일리지를 통합에코 마일리지로 합산 적립 하며, 마일리지 보상품 사용처를 통합에코 사용처로 일원화 제공

**회원 통합**

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
(개인 회원에 한함)

**마일리지 합산**

에코마일리지, 승용차마일리지 등 개별 마일리지가 등가로 합산됩니다

**사용처 통합**

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사용처가 통합됩니다



2022년  
12월 27일(화)  
통합 홈페이지  
오픈!

에코마일리지 mileage 승용차 마일리지

마일리지는 하나로!  
혜택은 두 배로!



하나의 아이디로  
쉽게 로그인!



각각 쌓은 마일리지는  
모아서 사용!



기존 마일리지  
사용처까지 통합!

각각 쌓은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하나로 모아 쓰는 편리함!  
통합에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
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가 무엇인가요?



서울시 내 가정과 사업장에서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

서울시 등록 자동차(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)의 운행 거리 감축

※ 개별 마일리지 감축 실적 평가 및 마일리지 지급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통합에코 홈페이지



ecomileage.seoul.go.kr

다산콜센터 02)120